

개인은 시간의 양감을 구성한다.-정연두 개인전에 부쳐
글. 김인선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디렉터)

정치 활동 중 일어난 분쟁으로 인해 프랑스로 난민 신청을 하여 이 곳에 정착한 **타후(Tahou)**는 그가 원했던 치안에 종사하며 생활한다. 그는 고향인 코트디부아르의 방갈로에서 입학 비리를 겪었으며 정치적 활동을 거치면서 프랑스에 대한 불신이 있었지만, 결국 프랑스의 선의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여전히 자긍심을 잃지 않은 채 현재는 그가 원하는 치안 일을 하며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카트린(Catherine)**은 1978년 어린 나이에 고향인 튀니지를 떠난 이민자이다. 성격이 활발한 여자아이였으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야 하는 문화로부터 뛰쳐나와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 **최옥경(Choi Okyung)**은 한국 부산 출신의 이주자이다. 특히 인상주의 미술을 사랑하여 프랑스에서 미술사를 공부하였고 전시를 만들며 작가들과 일을 싶었으나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말리에서 온 **살림(Salim)**은 불안정한 국가 상황을 피하여 온전히 독립적인 삶을 살고자 프랑스로 와서 하루 하루 노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가족과 다시 함께 하는 삶을 꿈꾸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살아간다. **하비바(Habiba)**는 2004년 알제리에서 온 주부이다. 억압된 문화와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 낭만적인 프랑스 생활을 꿈꾸며 이 곳으로 이주하였다. 단란한 가족을 꾸려서 안정적인 삶을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다.

2015년 프랑스로 간 정연두 작가는 그가 참여하게 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맥발 미술관(MAC/VAL)이 위치한 발데망 지역에 유독 많은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들의 이주 배경에 대해 조사하면서 당사자들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가 만난 이민자들은 그들이 이민 오기 전 프랑스에 대한 선입견과 기대, 이민을 오게 된 이유, 그리고 어떤 경험을 하면서 타지에서의 삶을 꾸리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민자라는 하나의 공통된 상황에 있는 이들은 결코 평면적이지 않은 개인마다의 다른 서사를 들려주었다. 작가는 남동부 교외 도시의 거주민들과 마주했다. 이곳 지역민 대다수가 타지에서 온 이민자들이었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타지에 살고있는 이들의 과거 타지에서의 삶의 기대와 현재의 삶을 작가 특유의 연출로 재현한 **여기와 저기 사이 Here and Elsewhere / d'ici et d'Ailleurs** 시리즈를 제작하였다. 이 작업은 2015년 맥발 미술관에서의 전시 이후, 2020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의 개인전을 통해 다시 선보이게 되었다. 2015년에는 각 화자의 불어 인터뷰 버전으로 전시하였고, 이번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의 전시에서는 이 인터뷰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한국인 성우의 더빙이 추가로 녹음되었는데, 맥발 미술관에서 소장한 3점의 작업을 제외한 총 5점이 전시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계기는 작가 노트에서 찾을 수 있다. 작가는 1974년도에 프랑스에 도달한 파리 시청 앞의 수많은 베트남 난민에 대해 듣게 되었다. 이들은 시청에서 여비를 받아 기차를 타고 톨시(Torcy)역에 내려 정착한다. 작가는 파리에 도착하기 전까지 망망대해에서의 보트 위에서 겪었을 불안감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그들의 의지에 대해 떠올렸다. 예술가로서의 연민과 열의는 그가 만날 수 있었던 지금의 이주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고자 하는 실천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정연두 작가의 이 프로젝트가 가능했던 것은 그가 다루는 작업 소재가 늘 개인 혹은 특정 집단/커뮤니티의 특징과 그들의 서사로부터 추출해 오는 성향이기 때문이었다. 개인에 대한 정

성스러운 관심과 경청은 언제나 정연두의 작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타자의 활동과 사고, 그리고 문화, 역사적 배경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자신의 미술 언어로서 재현하는데, 이 재현 과정에서 개개인의 삶과 문화는 더욱 풍부하고 확장된 형태로 드러난다. 그는 기록을 통하여 장면의 사실성을 포착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주로 사진과 영상 매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을 제시함에 있어서 관객은 연극적 공간을 마주하며 삶의 단편이자 그 짧은 순간에도 겹겹이 드러나는 시간의 양감을 체험하게 된다.

본 작업 시리즈는 각각 11겹의 사진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 입체 포토 콜라주이다. 사진 이미지의 실루엣은 미세한 초고속 드릴로 컷팅하였다. 잘라낸 이미지들은 액자 속 공간에 앞뒤로 배치되면서 물리적으로 압축된 공간감을 재현하였다. 마치 무대장치를 구성하듯 만들어진 이 얇은 공간은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그림자를 만들어내며 입체감 있는 풍경으로 재현되었다. 이는 정면에서는 하나의 풍경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지의 중첩이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이 작업의 재료의 물질감과 이미지의 배치 순서 등을 드러낸다. 즉 사진 매체에 의해 현실 공간을 환영적 화면으로서 포착된 풍경은 작가의 손을 거쳐 여러 번의 가공 작업과 조합을 통하여 물질감이 극대화 되도록 연출되어 있다. 이러한 기법은 전체 특정 서사의 단면으로서 하나의 장면을 담아낼 때, 대상을 바라보는 시점을 다각적으로 구사하였던 작가 특유의 방법론 중 하나이다. 대상의 중첩된 이미지들이 주는 입체 효과는 특히 2008년부터 진행해 온 **시네매지션 Cinemagician** 시리즈에서 보여준 명확한 공간 구성과 시각적 착시를 떠오르게 한다. 이 작업의 실재 무대는 3차원의 다각적인 공간으로서 관객이 보는 자리에 따라 무대의 모습이 여러 각도로 달라지면서 환영이 사라지게 되고, 이미지의 이면이 의도적으로 공개된다. 그리고 완벽한 풍경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시점은 다른 카메라가 담은 영상 화면으로 모든 관객이 동시에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와 저기 사이**는 무대의 축소된 이미지 안에서 한 개인의 서사가 압축적으로 내제되어 있음을 시각적으로 구축하였다. 각각의 작업에 구축된 11겹의 레이어는 관객의 시선을 이미지의 공간 속으로 더욱 깊숙이 끌고 들어가면서 타자의 이야기에 몰입하도록 만든다. 개인의 삶이 쌓이고 겹쳐진 시간들이 결국 이 세계의 역사이자 삶의 문화이다.

정연두 작가는 2007년도에는 사진-영상 장르에서는 최초로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했는데, 이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의 개인전을 할 수 있었던 최연소 미술 작가로서 기록되는 상이기도 하였다. 2008년 상하이비엔날레 아시아유럽 문화상을 수상하였으며, 전 세계 미술 시장의 동향을 전하는 미술지인 '아트 앤 옥션(Art + Auction)' 2012년 6월호 특집호에서는 한국 작가 최초로 '가장 소장 가치 있는 50인의 작가' 중 아시아계 작가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되기도 했다. 2008년, 뉴욕현대미술관(MOMA)이 그의 첫 비디오 작품 다큐멘터리 **노스텔지어(Documentary Nostalgia)**를 구입했는데, 뉴욕현대미술관이 한국인 작가의 미디어 작품을 구입한 것은 백남준 이후 처음이었다. 이 놀라운 기록들을 이룬 정연두의 작업 태도는 한결같다. 오히려 더 열성적으로 새로운 매체를 실험하고 새로운 소재를 찾는다. 그것이 작가의 소명인 양 여행을 즐기고 만남을 중요시하고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의미 있는 것을 찾아내는 데 여전히 열중하고 있다. 작가는 이 작업 속에서도 여느 이민자들이 겪는 다른 지역의 개인들이 다른 문화권 안에서 자리 잡고 정착해 나가는 이야기를 하나의 일반화된 시선이 아닌 개인의 역사로서 서술하게 하여 실제 인물과 실제 사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프랑스에서의 몇 달간의 레지던시 생활은 작가로서도 타

지에서 타인으로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삶의 형태를 각자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이미지로 드러낼 수 있도록 했다. *여기와 저기 사이* 시리즈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지역에 정착한 타지인들의 눈과 입을 따라다니면서 수집한 그들의 회상된 삶은 결국 역사의 시간을 구성하는 양감이라는 것을, 그리고 늘 정연두에게 감탄해온 그의 에너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했다.